신안군 증도 우전해수욕장

준비 안된 '졸속 개장'

숙박·편의시설 크게 부족
공사 진행 중 안전 위협도

신안군 증도의 우전해수욕장이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20일 전국 처음으로 문을 열었지만, 피서객을 맞을 준비가 미흡해 '졸속 개장'이란 비난을 사고 있다.

신안군은 이날 우전해수욕장에서 '시간조차 쉬어가는 녹색성장 슬로시티(Slow-City)'라는 행사명으로 전국 최초 해수욕장 개장식을 가졌다. 올해 신안군은 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5월 22일)보다 이틀 빨리 해수욕장의 문을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주민과 상인 등 400여명이 참석해 농악놀이와 국악한마당, 요트 및 선박 해상퍼레이드 등을 지켜보며 본격적인 피서객 맞이에 나섰다.

하지만 주민들의 기대와는 달리 해수욕장 곳곳에선 여러 문제점들이 발견됐다. 특히 숙박·샤워시설 등 편의시설이 크게 부족하고 관측용 안전망루는 파손된 채 방치돼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일부 주민들 사이에선 신안군이 '전국 최초'라는 홍보효과만을 염두에 둔 '졸속 개장'이란 비난이 나오고 있다.

신안군은 개장식 이후 주말과 휴일에 평균 4만여명의 피서객들이 몰려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해수욕장 내 샤워시설은 남녀 각각 16개에 불과해 피서객들의 큰 불편이 예상된다.

또 해변에 설치된 숙박용 몽골텐트 150동의 경우 텐트바닥에 씌워진 장판이 군데군데 찢기고 페인트 칠 마저 벗겨진 채 흉물스럽게 방치돼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장식과 함께 숙박예약을 받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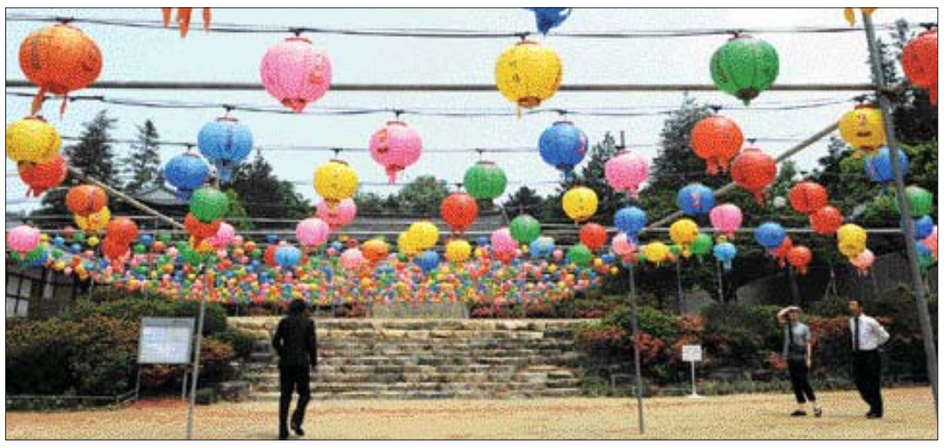
해수욕장 내에는 매점 1곳만 운영되고 있을 뿐, 인근에 음식점도 없는 실정이다.

군의 준비 소홀로 해수욕장 개장 이전에 마무리해야 할 공사들이 진행되고 있어 피서객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었다.

해수욕장 주차장 인근에선 하루종일 포크레인과 트럭 등 중장비가 오가며 해변 경사면에 콘크리트 블록 설치작업을 했다.

/신안=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서부취재본부=조완남기자 wncho@

신안군 증도 우전 해수욕장이 20일 오후 개장했으나 청소가 제대로 되지 않아 양식장 쓰레기들이 그대로 방치돼 있다. /신안=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둔 광주 무각사가 형형색색 연등을 매달고 불자와 시민들을 맞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24시간 열린 공간 … 도심 속 쉼터 '무각사'

하루 3000여명 이용 다도 등 다양한 강좌도

바쁜 일상 속 현대인들은 지친 마음을 놓고 안정을 얻어갈 '여유'를 갈망한다. 하지만 콘크리트 건물 가득한 도심에선 이런 공간을 찾기 어려운 실정, 그래서 시간을 들여가며 산사를 찾거나 오지를 여행한다.

그런 점에서 광주 상무지구 여의산 5·18기념공원 내에 자리한 무각사는 시민들에게 특별하고 소중하다.

무각사의 가장 큰 특징은 사찰 전역이 24시간 열려있다는 점이다. 맘만 먹으면 언제든 찾을 수 있게 한 것. 도심 속 녹색공간에 자리한 이 사찰(부지 1만6000㎡ 약 5000평)엔 담장이 없다. 정상에 자리한 전망대를 중심으로 어느 방향에서든지 접근이 가능한 것도 이러한 배려 때문이다.

절 주변으로 거미줄처럼 연결돼 있는 산책로는 하루 3000여명의 시민들이 이용하는 '여유'의 공간이다.

이곳 사찰을 찾을 땐 깨달음이니 뭐니 그런 것은 필요치 않다. 그저 거닐면 된다. 새벽부터 예불을 하는 불자들이 찾고, 한낮엔 시민들이 모여들며 아침·저녁 출·퇴근길에 잠시 들러 가기도 한다.

주말이면 사찰에서 하룻밤 묵으면서 자신을 돌아보는 '템플스테이'가 진행되며 지역민을 위한 사찰음식·다도·요가 등 다양한 강좌도 운영된다.

최근 무각사는 주지 청학 스님 1000일 기도 회향에 맞춰 문화원을 단장하고 새로운 도약을 모색하고 있다. 시민들에게 더욱 다가서기 위해서이다.

'무각'(無覺), 말그대로 "깨닫는 것조차 필요치 않다"는 뜻. 이 절이 항상 '열려' 있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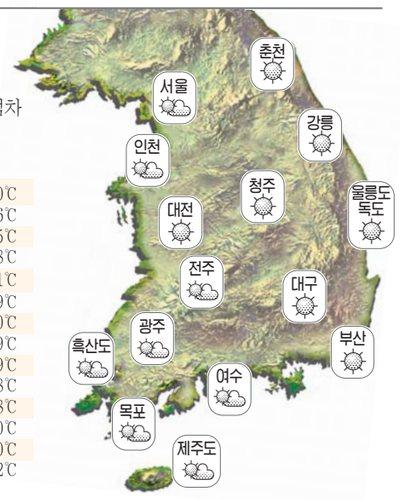
오늘 날씨

해뜸 05시 25분 해짐 19시 34분 달뜸 12시 29분 달짐 00시 52분

부처님 만나는 날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점차 구름이 많아지겠다.

광 주	구름점차많아짐	16/30℃
목 포	구름점차많아짐	15/26℃
여 수	구름점차많아짐	18/25℃
완 도	구름점차많아짐	16/28℃
구 례	구름점차많아짐	14/31℃
해 남	구름점차많아짐	16/29℃
장 흥	구름점차많아짐	16/30℃
고 흥	구름점차많아짐	14/29℃
순 천	구름점차많아짐	16/29℃
영 광	구름점차많아짐	13/28℃
진 도	구름점차많아짐	16/28℃
전 주	구름점차많아짐	14/30℃
남 원	구름점차많아짐	10/30℃
흑산도	구름점차많아짐	11/22℃



〈오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남~남서	0.5~0.5m
먼바다	남서~남	0.5~1.0m
남해 서부 앞바다	동~남동	0.5~1.0m
먼바다	동~남동	1.0~1.5m

자외선지수 높음 / 식중독지수 주의 / 황사지수 낮음

〈오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남동~남	0.5~1.0m
먼바다	남동~남	0.5~1.5m
남해 서부 앞바다	동~남동	0.5~1.0m
먼바다	동~남동	1.0~1.5m

	밀물	썰물
목포	07:47 20:14	00:18 13:18
여수	02:39 15:23	09:01 21:21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 짜	22(토)	23(일)	24(월)	25(화)	26(수)	27(목)
날 씨						
최저/최고	17/24	18/22	16/22	15/25	16/27	15/27

31도 … 무더운 석가탄신일

광주·전남 주말·휴일엔 비

석가탄신일인 21일 광주·전남지역은 낮 최고 기온이 31도까지 치솟아 무덥겠다.

광주지방기상청은 20일 "남해상에서 동진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점차 구름이 많아지겠다"고 예보했다. 아침 최저기온은 12도~18도, 낮 최고기온은 25도~31도로 전날과 비슷하겠다.

주말인 22일 오후부터는 10㎜ 내외의 비가 예상되며 휴일인 23일까지 다소 많은 양의 비가 내리겠다.

한편 20일 광주의 낮 최고기온은 30.1도로 올 들어 가장 높았다. 이는 평년기온보다 5.9도 높은 것으로 일별 기온으로는 17년 만에 가장 더웠다. 또 이날 순천이 30.4도로 광주·전남에서 가장 높은 기온을 보였으며, 보성 30도, 장흥 29.6도를 기록했다.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

고속도로 사고다발지역 48곳 집중관리

동광주 IC~담양고서 포함

호남고속도로 동광주 IC~담양 고서구간을 비롯한 전국 고속도로의 교통사고·사망 다발지역 48곳이 집중 관리된다.

경찰청은 20일 최근 3년간 사망자가 5명 이상 발생한 전국 고속도로 구간 48곳을 집중관리키로 했다고 밝혔다.

고속도로별로는 경부가 13곳으로 가장 많고 서해안과 영동 각 6곳, 남해 4곳 등이다. 호남고속도로는 동광주IC~담양 고서(7㎞)와 전북 익산IC~익산 분기점(6㎞) 등 2개 구간이 포함됐다. 관리 대상 도로는 좌우 곡선이 반복되거나 오르막과 내리막이 반복돼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구간이다.

경찰은 해당 구간의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전담반을 구성해 도로 구조나 선형을 개선할 방침이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